

김성수, *교회교육론*, 서울 : 총회교육위원회, 1993.

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대구 :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1992.

박봉목, *교육이론과 실천원리*, 대구 : 학문사, 1997.

알버트 그린, (안경상 역),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읽기*, 대구 :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5.

알버트 그린, (안경상 역),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대구 :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5.

Blomberg, D., "If life is religion, can school be neutral?"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Papers* 67, July 1980.

Coles, R. and L. Genevie, The moral life of America's school children, *Teacher* 108 : 43-49, 1990.

Goudxwaard, B., *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Ontario, Canada :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89.

Otis, J.M., "The Necessity for the Christian School", *Journal of Christian Reconstruction*, Vol.II, No.2. 1986-87.

Seerveld, Calvin, *Cultural Objectives for the Christian Teacher*, Toronto, Canada : ICS, n.d.

Spier, J.M.,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Nutley, New Jersey : Craig Press, 1976.

Spykman, G. J., *Christian Faith in Focus*, Ontario, Canada : Paideia Press Ltd., 1992.

Stronks, Gloria Goris and Doug Blomberg ed., *A Vision with a task*,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s, 1993.

Van Brummelen, Harro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 Christian Approaches to Learning & Teaching*, Burlington, Canada : Welch Publishing Co., 1988.

Van der Walt, B.J., *Being Human in a Christian Perspective*,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77.

Van Dyk, John "Teaching Christianly : What is it ?" *Christian Educators Journal*, 26(2) : 26-27. 1986.

\_\_\_\_\_, "Teaching Christianly : What is it ? (II)" *Christian Educators Journal*, 26(3) : 10-11. 1987.

\_\_\_\_\_, "Teaching Christianly : What is it ? (III)" *Christian Educators Journal*, 26(3) : 10-11. 1987.

# 교육목회의 개념과 전략에 관한 일 고찰

## A Study of Concept and Strategy of Educational Pastoral Care

강 용 원\*

### 목 차

1. 서 론
2. 교회에서의 교육사역의 본질
3. 교육목회의 정의와 가능성
4. 교육목회의 세 가지 길
5. 결 론

### 1. 서 론

교육목회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여러가지 종류의 목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는데, 예를 들면 병원목회, 장애인목회, 학원목회 등이다. 그래서 교육목회라는 말이 어떤 특수한 형태의 목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많다. 연구자는 교육목회를 어떤 특수한 목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회를 지향하려는 노력'으로 파악하면서, 그 개념과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교육목회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노력을 전체적으로 시도하면서, 몇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자 한다.

\* 교수(기독교교육과), 실천신학전공

## 2. 교회에서의 교육사역의 본질

교회가 수행해야 할 일들은 다양하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ministry라는 말로 부른다. 이 말은 우리말로 '목회'나 '교역'이기 보다는 '사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ministry는 목사나 교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교회 전체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교회의 교육적 사역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말씀을 기초로 살펴 보고자 한다.

흔히 새약본문으로 알려진 신명기 6:4~9은 '이스라엘의 교육헌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교육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령을 담고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 즉 종교적 명령과 교육적 명령이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였으며, 또한 교육의 공동체였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전해 주는 도구로 교육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면, 교회는 그대로 신앙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교육의 공동체인 것이다.

구약에서 교육의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같은 명령을 내리신다. 마 28:19~20의 말씀에서 정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 하나 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전도의 명령으로 취급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교육적인 용어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동사 외에 이 말씀 가운데는 '간다', '세례를 준다', '가르친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분사형이다. 그리고 '지키게 한다'는 동사는 부정사형이다. 그러므로 이 세 동사들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면서 제자삼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어떤 이는 가서, 세례주는데까지는 전도이고, 그 후에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라고 구분하여 말하는데, 이는 올바른 설명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국 '제자삼는' 일이며, 이것은 순수히 교육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에 착안해야 할 것이다.

엡 4:11~16에 의하면 신자의 평생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며,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자들의 '훈련과 교육의 도장'이다(엡 4:13~15). 또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인 목사를 성경은 교사사직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묘사하고 있다(엡 4:11).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이며, 教會라는 한자의 표현대로 '가르치는 모임'이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교육만은 아니다. 교회는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행 2:42). 딤후 2:1~2은 교회가 그 성격상 가르침과 배움의 연결고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가 교육을 중시하셨음을 알게 된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즉 가르치심,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병고치심을 말하면서, 교육의 사역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강조는 고작해야 3분의 1의 강조로 끝나는

것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전도자로 묘사하기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교사로 묘사하였다. 적어도 예수님은 자주 랍비나 선생으로 불리웠으며, 예수님 자신도 이 호칭을 즐겨워하셨다. 가르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짓는 중요한 용어이며,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선포자로 묘사하기 보다는 더 많은 곳에서 가르치는자로 묘사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로 불리웠으며, 예수님이 공사역에서 가장 주력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를 가르친 일이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침을 그의 사역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cf. Coleman, Chap. 1)

교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교육이 존재해야 하며, 교회가 행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교육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리가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교육사역은 교회의 여러가지 사역 중의 하나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역 중에서 핵심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들의 기초가 되며, 모든 사역들을 통합시켜주며, 또한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육목회의 참된 근거가 된다.

## 3. 교육목회의 정의와 가능성

우리는 이미 앞에서 교육이 교회의 사역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미래의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런 저런 구분으로 나누는 일에 익숙해 있다. 즉, 목회를 설교, 심방, 행정, 상담, 교육 등으로 나눔으로, 교육을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 목회의 제반 영역 중의 한 부분에 그쳐서는 안되며, 교육이 목회의 전반적 원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야말로 미래의 목회를 위한 참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노력을 우리는 '교육목회'라고 부르기를 원한다.

소위 교육목회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목회의 이원론적 사고에 대항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는 목회와 교육의 극심한 분리 현상이 있음을 본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평신도의 일이며, 그 대상이 어린이임에 반하여, 목회란 목사의 일이며, 그 대상이 어른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때문에 어린이에서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전 회중을 포괄하는 교회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 연계성, 통합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도 목사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되는 점이나, 성인교육의 강조, 그리고 목회가 목사의 일이라는 하지만, 평신도의 참여가 강조되고, 심지어는 '어린이 목회'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향 등은 교육과 목회가 서로 많이 접근되고 있고, 또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목회의 본질이 개개인의 신자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련시킴으로써,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본다면, 이미 목회라는 개념 속에는 교육의 요소가 깊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신자들의 어머니이며, 이렇게 본다면 신자의 삶은 '영원한 학생'으로서의 삶이다. 그러므로 교육목회란 목회의 다른 형태를 추구하는 일이라기 보다는 목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일로, 목회의 본질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의미를 인식, 수용, 적용, 개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은 무엇보다도 목회의 목표, 목회자의 자세, 목회의 구조와 방법론 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목회의 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제자화'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그 직분 자체가 교사직과 깊은 관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개신교에서 목사는 신학자인 동시에 교육자로 여겨진다고 하는 점이다. 또한 목회의 구조와 방법을 일방통행적인 구조에서 상호통행적이며 참여를 북돋우는 구조로 전환하고, 전 회중을 교육 시스템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교육목회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이 가르치는 자라는 인식을 하는 일이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과 같이,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워야 하며, 자신의 진보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딤후 4:15~16). 무엇보다도 목사 자신이 말하고,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모습, 듣는 청중의 모습,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죄에 의해서 고통 당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식되는 것, 이것이 교육목회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본다.

## 4. 교육목회의 세 가지 길

교육목회에 접근하는 길로는 다음 몇 가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교회 전체의 기능으로서의 교회교육의 갱신을 추구하는 일이며, 둘째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중심으로 교육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것을 든다면, 교제, 전도(선교), 봉사, 예배 등이다. 이러한 사역들은 그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제고시켜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역들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세째는 목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교육적 접근, 즉 목회를 구성하는 설교, 심방, 상담, 예배 및 의식, 교제, 봉사 등의 교육적 의미 부여와 개발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4.1. 교회교육의 갱신을 위한 제안들

#### 4.1.1. 평생교육 체제로서의 교회교육의 구조 개선

미래의 교회교육은 평생교육과정으로 모든 교인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교육만이 아니라, 성인(장년)교육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어린이를 중심한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교육의 전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주일학교는 신앙교육의 유일한 전략이 아니다. 기독교교육은 모든 연령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바, 기독교교육이야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평생교육적 과정(life-long process)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은 연령을 중시하는 구조 외에 다양한 초세대적, 간세대적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교육받게 되는 세대포괄적인 과정으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회중의 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아들의 부모들을 위하여 뚜렷이 개발된 목회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며, 그들이 학교에서 자기를 실현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위한 사려깊은 시도가 교육목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교육목회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과 삶,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관련하여 청년 남녀와 모든 성인들을 위한 특별한 도움을 계획해야 한다. 교회는 은퇴한 자들과 노인에게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 4.1.2. 신앙공동체형의 교육전략

교회교육은 본질상 공동체적 삶에 기초해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의도적 활동이다. 즉 교육공동체로서의 교회인식이다. 교회교육은 교회의 전체적인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멤버는 모두가 가르치는 자임과 동시에 학습자가 된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학습이란 일정한 기간의 특정 대상에게만 국한하는 교육이 아니라 일평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의미한다. 교회 전체는 교육의 현장이다. 교회는 교육의 주체이면서도 또한 그것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즉 교회학교의 조직이나 교육관 시설만이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적, 물적 요소가 다 교육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당의 입구와 현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안내하는 집사의 거동에서부터 교육적 영향력은 행사된다. 전체로서의 교회는 하나의 교사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교회는 교육의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육적 프로그램이다."(Graves, 107)

최근에는 이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교회교육의 신앙공동체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교회교육이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두는 학교식(schooling) 교육 구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근거하여 신자들 상호간의 삶의 스타일과 태도 형성에 주안점을 둔다. 일찌기 로렌스 리차즈(L. Richards)는 신앙교육의 출발점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유기체적인 교회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흔히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학교나 학교의 교실을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현장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접근 이론은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식 모델보다는 '신앙공동체'형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강조하는 것을 정리한다면 교수(teaching)보다는 삶의 나눔(sharing)의 중시, 프로그램이나 조직 보다는 인간관계의 중시, 교실환경 보다는 '교실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포괄적 삶의 정황(total life setting)의 중시,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령에 기초한 조직이 아니라, 간세대적인 교육의 강조, 공동체적 삶과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의식이나 예배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회중은 형식적, 비형식적 과정을 통하여 모두가 가르치며 배우는 자들이 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교육목회의 개념은 그 책임을 평신도와 교역자가 나누어 가지며, 각기 특수화된 기능을 또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 4.1.3. 교육의 전문화와 팀 사역(team ministry)의 이상

21세기의 교육목회는 무엇보다도 팀 사역의 이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담임목사나 혹은 목사들의 팀으로 구성되는 목회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인들을 그 목회의 팀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목사가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모두 가지게 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전문으로 훈련받은 교육목사(영유아 교육목사, 어린이 교육목사, 청소년 교육목사, 성인 교육목사 등), 음악에 깊은 재능과 교육을 받은 음악목사, 상담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목사, 그 외에도 기획, 행정, 출판 등을 맡는 목사들도 가능할 것이며, 이와같은 전문화된 목회자의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을 목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제반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있으나, 그것이 그가 모든 것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교육목회의 성취를 위해서는 교회교육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능력과 지혜를 교회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는 최근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교육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보기를 원한다. 연구자가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교육사를 이야기 할 때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적 훈련을 받았기에 교회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팀 사역이라는 넓은 개념을 전제함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전문화된 지혜를 함께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팀 사역의 중요성은 바로 상호작용에 있으며 보충작용에 있는 것이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서로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팀 사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전문가는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신학적 소양을 갖춘자로, 기독교교육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서 이를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구현할 만한 능력을 갖춘자이다. 이 기준에서 이러한 전문가의 양성을 수임받은 기관이나, 혹은 교육사를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시험을 통해서든, 계속교육을 통해서든 이런 소양을 갖춘자를 길러내고 선발하면 된다고 본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소위 ‘교육전도사’들이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 명칭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전문직도 아니고 지교회나 편의상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교육전도사의 활동을 관찰해 보면, 대개의 경우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장경험도 많지 않은 비전문가들로서 ‘신학생’이란 신분만을 가지고 목회실습의 차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교회학교 특정부서의 교육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교육담당자의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전도사는 하위 체제에 갇혀있어 거시적인 교회교육에 공헌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내적 성숙을 위한 교육공동체로서의 인식, 그리고 교육전략 수립과 함께 이를 이끌어 갈 교육전문가가 요청되고 있다. 미래의 교회는 목사의 소명을 받지 않은 자가 교회교육의 전문인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일은 교회의 교육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인들을 고용해 나가는 길을 터 놓을 것이며, 팀 사역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 4.1.4. 새로운 전략의 구상

21세기 교회교육의 우선적인 과제는 교육의 전문화에 있다. 교회교육은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기본적, 선택적, 지속적, 단속적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지속적, 기본적-단속적, 선택적-지속적, 선택적-단속적인 프로그램 등이다. 이러한 틀을 각각 어린이목회, 청소년목회, 성인목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가 교회의 행정건물을 채워나갈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는 가장 요긴한 전략의 하나로, 교육목회적 노력이 주일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일의 교회는 사람이 없는 교회, 불꺼진 교회였다. 그러나 미래의 교회는 주일의 교회만이 아니라, 평일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매일 밤마다 불이 켜져 있는 교회, 주간의 모든 시간에도 교회행정이 가동되며, 교회건물이 사용되는 교회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회의 공간과 시설들은 무엇보다도 전 교인의 교육프로그램과 훈련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서 주일에만 국한 되어왔던 교육적 노력을 평일에까지 확장함으로 기독교교육적 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가 여러 곳에서 제안한 바 있는 주간(평일)학교의 구상은 교회의 주간의 시간을 교육을 위해 완전 가동하자는 것이다. 가능하면 주간학교는 아가방이나, 탁아소를 위한 설비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한다. 이 일은 부모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며, 어린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중의 계층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전 시간은 유치원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며, 오후에는 방과 후에 돌아오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저녁시간은 중고등 학생을 위한 시간으로, 그리고 청년과 중년 및 노년부의 활동도 낮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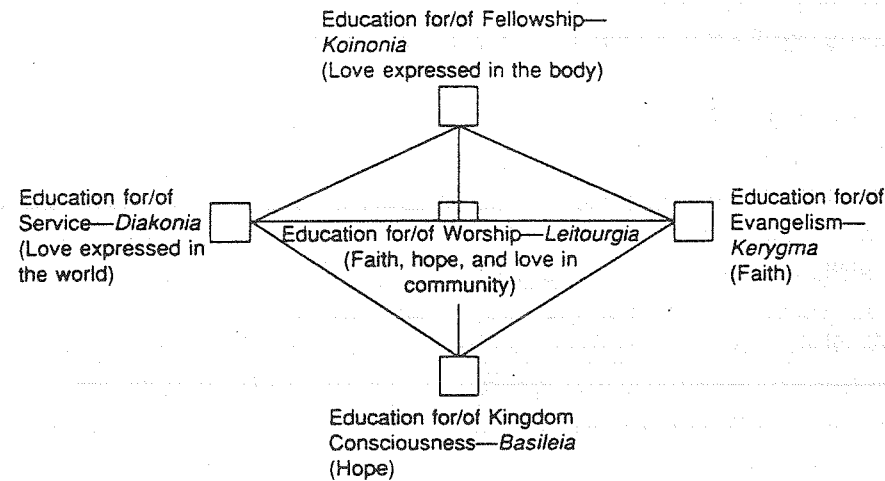
특히 성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선 연령별 조직으로서의 성인부를 교회학교의 조직 속에서 활성화 시키고, 기타 비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적 프로그램의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연령에 의한 조직보다는 직업, 관심, 요구, 성별, 신앙수준 등에 따라 소그룹화하여 그 그룹의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에 흥미를 줌으로 동기유발을 돕고,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도록 한다. 특히 설비면에도 관심을 갖고 안락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앞으로의 교회는 더욱 더 다양한 그룹들을 기초로 존재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계적인 성경공부의 개발 및 각종 영성 훈련이나 조직적인 제자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교육을 위한 평신도학교의 개설, 교인들의 요구에 기초한 다양한 강좌의 개설, 목사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한 대화의 모임, 회중의 요구와 관심에 입각한 각종 상설, 비상설 그룹의 형성,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개발(부부교육, 자녀교육, 신부교육, 신혼부부교육, 가정예배를 중심한 영성 훈련, 가족찬양, 가족캠프, 독신자 및 홀로된 사람을 위한 모임), 인간관계 훈련, 기초공동체 훈련, 주부대학, 경로대학, 각종 취미학교 등의 특별

프로그램 등도 가능할 것이다. 구역예배의 형식도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낮에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모이는 구역예배가 아니라, 몇 가정의 구성원들이 연령을 초월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모임에 합당한 간세대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4.2. 교회의 사역을 중심으로한 구상

로버트 파츠미노(Robert W. Pazmiño)는 그의 책 “기독교교육의 기본문제들”(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에서, 교회의 교육적 과제와 관련하여 에드워드 힐(Edward V. Hill)이 콜든-콘웰 신학교에서 행한 강의에서 제시한 모델을 인용하고 있다. 힐의 모델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야구장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모델은 다음과 같다.(Pazimiño, 40)



힐은 이 도표에서 교육이라는 사역을 한 부분에 설정하고 있지 않다. 즉 교육을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의 하나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연구자가 앞에서 말한 논의와 그 흐름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힐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전도(evangelism : kerygma), 교제(fellowship : koinonia), 봉사(service : diakonia), 왕국의식(kingdom consciousness : basileia), 예배(worship : leitourgia)의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교회의 사역의 요소들과 비교해 볼 때, ‘왕국의식’은 조금 생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자의 삶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장차 이루어질 왕국을 대망하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파츠미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기독교신자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실현시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많은 사역들 안에서의 인간의 노력들은 왕국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Pazimiño, 43) 왕국의식은 신자들로 하여금, 미래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점을 얻게 하는 것이다.

힐은 이 도표를 통해서 교회의 교육적 과제는 이러한 ‘사역들을 위한(for) 교육’과 ‘사역의(of) 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교회가 이러한 사역들을 준

비시키기 위해서 교육해야 함과 아울러, 이러한 사역 자체가 교육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파츠미노의 설명에 의하면, 교육은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1루에 나타나는 케리그마는 무엇보다도 앎(knowing)을 강조함으로 3루의 diakonia가 강조하는 행함(doing)과 상호보완을 이룬다. 효과적인 교육사역을 위해서는 믿음의 앎과 행함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축이 나타내 주는 것이다. 3루는 koinonia로서, ‘하나됨’의 의식, 즉 ‘하나님과 타인과 다른 피조물과의 화해’된 느낌을 강조한다. 2루와 보완작용을 하는 홈 베이스인 basileia는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구별됨’의 의식 혹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로축은 기독교인의 ‘세상 속에 있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미(already)’ 존재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아직(not yet)’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kerygma가 과거를 강조한다면, diakonia와 koinonia는 현재를, basileia는 미래를 강조한다. 또한 이 요소들은 신자의 삶의 중요한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데, kerygma는 믿음을, basileia는 소망을 diakonia와 koinonia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diakonia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며, koinonia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cf. Pazimiño, 44ff)

우리는 여기서 교회교육의 사역은 사역 포괄적이며, 교육은 다양한 사역들을 위하여 존재하며, 또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육목회의 구상을 이러한 사역들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3. 목회의 영역에 대한 교육적 접근

### 4.3.1. 예배

앞에서 본 힐의 도표에 의하면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예배라는 요소에 집중되도록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Pazimiño, 44f) 실제로 예배는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의 차원,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 의식의 차원, 세상을 향한 봉사의 고무,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친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종합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예배는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의 초점을 이루게 된다. 이 모델에 의하면 예배에서 두 축은 교차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함께 작용하며, 인간의 앎과 느낌과 행동이 합쳐져 전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믿음, 소망, 사랑이 합치되는 것이다. 실로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며, 앎과 행동이 만나며, 분리와 연합이 교차되며,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만나게 되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다른 어떤 사역들 보다는 교육과 깊이 관련된다. 어쩌면 예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본질상 예배하는 종교이며, 또한 교육하는 종교이다. 교회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은 쉽게 추론되어진다. 예배는 교회생활의 중심이며, 웨스터호프(J. H. Westerhoff, III)가 말한대로 “예배의 포기는 신앙의 소실을 의미한다.”(Westerhoff, 108) 만약 예배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면, 교회교육은

참된 예배인을 양성해야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또한 예배를 신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미 예배가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와 교육은 상호관계 속에 있게 되며, 이런 이유로 예배는 교회교육이 관심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된다. 만일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이 된다면, 마땅히 예배는 교회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예배 그 자체를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경험은 자연스럽게 배움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교류의 체험은 기억과 감정으로만 남지 않고, 신앙과 삶의 새로운 구조화를 가능케 하는 배움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예배라는 공동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계를 배우며, 자아와 그의 책임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웨스터호프는 교회교육은 가르침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예배는 하나님의 실재와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 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를 반성하고 결단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육을 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본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교회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제 교회교육과 예배와의 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4.3.1.1. 개신교 예배의 교육적 특징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란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배란 그 본질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선적으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 외에 예배자의 변화라는 예배체험의 목적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향한 변화는 교회교육의 목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영적변화가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변화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결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예배가 교육 그 자체는 아니라해도,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회개와 결단을 동반하는 삶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주기때문에 예배의 체험은 곧 배움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만약 교회교육이 인간의 참된 변화에 목적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예배 본질의 초점을 둬으로써 예배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예배는 언제나 교육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며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특히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과 성례의 거행”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 중심의 예배가 개신교 예배의 특징을 이루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성례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즉 교1육적 의미의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례전의 상징적 의미가 교육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주장도 주목된다. 어쨌던 개신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움으로 교육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예배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순서들이 교육과 관련되지만, 특히 설교는 개신교 예배의 심장과도 같으며, 이 점에서 개신교 예배는 교육적인 성격을 갖는다. 신학적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데 그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

포이기는 하지만, 예배 참여자의 편에서는 설교의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교육적인 기능이다. 설교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부르시며, 그러한 삶은 곧 교회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된다. 또한 설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깨우치고 신앙을 양육시킨다는 점은 교육과의 연계성을 더 깊이 나타내준다. 설교의 교육적 기능으로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설교는 인간의 신앙적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물음과 대답의 교수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폴 비트(Paul Vieth)는 “예배는 기독교교육의 커리큘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예배가 없는 가르침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교육이라 할 수 없다.”(Vieth, 13)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없다. 또한 기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분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일이며, 닥아오는 많은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것 이상이 아닌 것이다.

#### 4.3.1.2. 예배의 교육적 구상

예배의 교육적 구상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예배를 위한 교육”이며, 또 하나는 “예배의 교육적 구상”이다. 그러면 먼저 예배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교회는 교육적 예배를 구상할뿐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교육하여야 한다. 예배에 대한 교육은 회중들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배를 위한 교육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의미와 내용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신자를 환영하고, 오늘 드릴 예배의 주제와 각 순서의 의미와 참여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성경공부의 주제로, 혹은 다른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배가 드려진 후에 예배에 참여한 느낌을 나누는 시간이나, 평가시간을 갖을 수 있다. 다른 교회나 외국 교회의 예배를 녹화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하거나, 다른 교회의 예배를 소 집단으로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예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예배가 삶과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에서 언급하게 될 ‘설교대화’ 역시, 설교를 삶과 연결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설교나 예배를 더욱 교육적인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Seelsorge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영혼의 돌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목회’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목회대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Seelsorge는 목사가 전체적으로 회중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신자들 개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격려하며, 도와주는 일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회중들에게도 전해진 말씀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부단히 점검하기 위해 대화, 심방, 만남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것은 예배의 교육적 영향력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예배를 위한 교육”과 함께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예배의 교육적 구상”이다. 예배의 교육적 구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평가하는 일로부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배가 생동력있게 구상되기 위해서는 회중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배와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른 예배 외적인 프로그램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적 예배를 위한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강용원, 1995, 68ff.)

첫째, 주제를 중심한 방향성있는 예배의 구상이다. 예배가 교육적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전략은 예배를 어느 정도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성과 방향성 있게 계획하는 일이다. 단순히 설교와 찬송을 맞추는 것 이상의 다양한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예배의 각 부분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일관성있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성가대 찬양의 곡 선택, 신구약 성경의 낭독을 위한 본문의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도의 내용이나 예배실의 배열이나 장식 등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배실을 꾸미는 것은 단지 특별한 절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연구자는 예배 장식을 흥미롭게 한 것을 하나 본 일이 있는데, 성령에 대한 설교 후에 극장같이 생긴 중2층의 배란다 양쪽으로 많은 수의 흰 천들이 잡아 당긴채로 드리워져 성령강림의 느낌을 입체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배이다. 우리의 예배 분위기는 다소 경직되어 있으며, 정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특히 성격이 민감하고 동적인 청소년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다. 최근에 많이 실시되고 있는 찬양예배의 형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여름 수양회에서는 촛불예배도 가능할 것이다. 무언사회의 형식, 예배의 자세에서의 다양한 변화, 즉 원형예배, 서서 드리는 예배, 바닥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무릎꿇는 형식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시낭독, 역할극, 드라마 등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슬라이드, VTR, OHP 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음악의 다양한 사용은 예배의 순서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물론 예배를 연극이나 영상으로 대체해서는 안되지만,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사려깊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설교형태의 다양화도 생각해 봄직하다. 신구약 성경의 봉독이나 낭독도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나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읽는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읽기를 통해 성경을 친근히 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독의 방법도 있을 것이며, 사전에 입체음성으로 녹음된 테이프를 말씀 듣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절기 예배는 그 절기의 의미가 잘 드러나며,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참여하는 예배의 구상이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의 참여를 중시해야 한다. 앉아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의미있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 될 것이다. 예배는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과 거기에 반응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반응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준비하고 알리며, 예배에 대한 평가도 행한다. 가능하다면 여러가지 형태로 신도들이 예배의 객체에서 주체가 되게하기 위해서 안내, 사회, 기도 등 다양한 순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성가대의 찬양 외에도 회중이 참여하는 찬양의 시간을 만들고, 부활절이나 성탄절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예배실 장식을 통해서 예배를 돕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편의 교독이나, 공동의 기도문을 읽는 일, 찬양에 화답하는 일, 설교 후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일, 말씀의 나눔시간(간중), 자신의 신앙고백시간 등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가지 순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배가 그들의 내적인 요청과 바람에 부합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째, 공동체 의식을 지향하는 예배의 구상이다. 예배는 공동체적 참여를 강조한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속에 있음을 느껴야 한다. '예배에의 부름'은 참여한 회중들에게 그들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모였음을 알리는 순서이다. 이 순서는 참여한 모든 회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모두가 함께 예배의 참여자가 되도록 초청하는데 초점을 둔다. 예배에의 부름에 대한 다양한 형식 개발 -적절한 표현이나, 문구-을 통해서 예배에로의 초청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됨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예배에서는 설교, 찬송, 기도 등이 강조되면서 교제와 나눔은 예배 밖에 배치되고 있다. 교제와 나눔이 경건한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 히려 교제와 나눔 가운데서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하신다. 예배는 함께 모인다는 것에서 공동체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진행되는 순서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타나도록 고려해야 한다.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광고'시간이 여기에 대응되는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다. 광고시간은 단지 공적인 일들을 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나눔의 시간이 있는 후에는 합심기도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한다. 또한 공동체 예배의식의 확대를 위해서 어른,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 모이는 합동예배, 가까운 교회들과의 연합예배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서받은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임을 인식하기 위한 고백의 시간, 참회의 공동기도문, 사죄의 확신(찬송) 등의 순서도 유용할 것이다.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것은 성찬이다.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성찬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제안이 따라야 할 줄 안다.

#### 4.3.2. 설교

최근에 교육설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cf. 한춘기, 127ff.)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교를 "예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있게 전파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설교와 교육을 엄밀하게 구별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을 기초로 구분하여 본다면, 설교는 30분 정도의 어떤 제한된 시간의 상황을 상정하며, 독립성(단회성), 일방성, 도전적인 선언성(회개와 결단의 촉구), 원리의 제시 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교육은 연속성, 상호성(인격성), 적용성, 설명성이 강하다. 물론 이런 구분이 모든 설교와 가르침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경향성은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본다.

연구자는 설교도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행위이며, 가르치는 행위라고 본다. 왜냐하면 설교 역시, 듣는 이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는 그 속성상 가르침의 요소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어 '교육적 설교'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 자체가 교육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교는 어디까지나 설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육적 설교라는 말을 쓰고자 하는 것은 설교가 설교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한도 안에서 가르침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cf. Skinner, 81~89)

그러면 교육적 설교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설교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며, 교회가 예배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예배는 설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설교는 다양한 방법의 교육(가르침)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설교는 기독교인의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우기 초신자나 설교에 의존적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설교는 전체 회중을 향하기 때문에 목표가 제한되고, 개인 적용면이 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은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를 실제로 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교회는 제도적으로 가르침의 다양한 통로를 개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소그룹 개발을 통한 성인교육의 다양한 통로를 개발한다거나, 전실한 제자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적 노력이 병행될 때, 설교는 더욱 교육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설교와 교육의 보완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설교담화(sermon forum)’, 설교본문과 성경공부의 본문을 동일하게 하는 법, 혹은 예배 후에 설교의 전문을 나누어 주는 일 등을 들 수 있겠다.

설교담화는 설교가 행해진 후에 설교에 대해 이야기 하는 모임이다. 이것은 설교 평가회가 아니라, 깨달은 점을 나누고, 더 알고 싶은 점들을 질문하며,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다. 설교담화의 장점을 정리하면, ① 설교를 정신차려 듣게 한다. ② 설교가 의미있는 교육의 매체가 되게 한다. ③ 참석자에게 능동적인 책임감을 갖게 한다. ④ 설교자에게 보충설명의 기회를 준다. ⑤ 설교자에게 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가에 대한 휘드백을 준다. ⑥ 설교자에게 앞으로 강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점에 도움을 준다.

또한 설교는 계획되어야 한다. 교육적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려깊은 설교의 계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설교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계획을 갖기 위해서는 청중들의 요구와 현실을 분석하는 일, 건전하고도 바른 성경신학적인 구조를 갖는 일, 그리고 이를 기초로한 성취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력은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육적 설교를 하기 원하는 설교자는 자신이 무엇보다도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설교자의 권위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지, 설교자 자신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의 바른 수증자, 해석자라는 의식,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자이며, 배우는 자라는 의식을 소유해야 한다. 설교의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제목설교나 주제설교가 비교육적인 설교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설교나 강해설교를 지향하되,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설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설교자는 본문의 선택, 구성과 조직에 있어서 통일성, 결합성, 점진성, 균형, 절정 등의 요소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설교를 이루기 위한 설교의 방법적 측면에서의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설교는 무엇보다도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청중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나 전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화식 설교의 개발, 설교의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적용하는 일, 최근에 많이 제시되고 있는 이야기 설교를 보다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일, 설교평가에 대한 통로를 개발하는 일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며, 동시에 청중을 고

려하는 설교를 구상하는 일이다.

대화적 설교란 일방통행적인 설교의 형태를 벗어나기 위한 한 시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대화설교는 실제로 두 사람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화식, 질문식으로 설교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중의 삶과 관심이 반영되는 설교가 된다면, 그것은 내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설교가 된다. 설교는 회중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외에 설교 후에 응답할 수 있는 목상의 시간을 준다거나, 설교에 대한 느낌을 적어 보게 하는 일, 지난주 설교에 대한 적용점을 알아보기 위해 일 주일 동안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게 하는 일, 특별한 경우에는 설교에서 연극적 요소를 이용하거나, 혹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힘드는 일이지는 않지만, 한 주일 전에 설교제목과 주제를 주고, 먼저 담화의 시간을 가진 후 설교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배경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룹방법 중에 나오는 배경연설(screened speech)과 유사한 형식이다. 연구자는 한 예배에서 설교 때 인용된 말씀들이 기록된 조그만 색종이 카드를 실로 나무에 묶어 놓고, 서로 하나씩 펴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흥미로웠다. 이런 형식은 예배 후 흠어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3.3. 심방

한국교회의 심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심방제도는 몇 가지 점에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심방이 ‘의례적인 순회’로 여겨지고 있는 점, 예배와 축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또는 너무 많은 심방요원도 문제가 된다. 또한 대화시간이 오히려 턱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심방이 진정한 목회적인 차원에서의 만남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다.(cf. 오성춘, 186f.)

무엇보다도 심방의 의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하여 생각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심방이 가지는 목회사역적 의미는 성육신이 가르쳐 주는 사역적 의미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참된 목회의 원리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의 성육신의 사역은 함께함, 이해함, 돌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바, 이것은 바로 ‘교육적인 돌봄’이라고 요약된다. 이것은 심방이 성육신의 원리에 따라서 수행될 때, 교육목회를 위한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방과 교육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통해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심방은 ‘함께함’의 사역이다. 특별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나 질병이나 죽음의 때에는 함께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소외된 사람들이나 외로운 노인들에게 함께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었다. 위대하신 교사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교육적 영향력을 나타내 주셨다(막 3:14). 만남과 함께함, 그리고 대화함은 그 자체로서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둘째는 이해의 사역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다. 이와 같이 심방은 목사로 하여금, 교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심방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며, 그의 기도를 또한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목사에게는 세계의 방이 필요한데, 심방과 글방과 골방이라고 한다. 이렇듯 심방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활동의 하나이다. 심방을 통해서 목사는 교인들과 관련된 직접적이고도 당면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결과 목사의 설교는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정열적이 된다. 심방이 없는 설교는 마치 설교자의 목소리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해는 모든 가르침의 출발이며, 그 자체가 교육적 행위이다.

세째는 돌봄의 사역이다. 심방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돌봄의 의미를 갖는다. 예수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목회자들은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적극적으로 돌볼 의무가 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어, 우리의 죄악을 치유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심방의 본질은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며,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일에서 찾아야 한다. 목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해진 말씀은 신자들의 개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목회란, 청중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 개개인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며, 그들을 성숙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이다. 또한 심방의 목적은 영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위기에 닥치기 전에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이제 심방의 바른 회복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심방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심방은 격려, 용서, 화해를 중심한 목회대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예배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인격적 요소를 가미시켜야 한다. 또한 심방은 개인 목회로 나아가는 연결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방의 형태는 예배적 요소(찬송, 기도, 말씀)와 인격적 이해, 격려, 공감에 기초한 대화적 요소가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한다. 교제적 요소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 교제적 요소는 사교성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또한 그것을 초월한다. 심방의 궁극적 목적은 사교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 성장이다. 인간적인 따스함과 진실성, 그리고 성실히 들어주는 요소에 더하여 목회자는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4.3.4. 상담

일반적으로 상담의 목표는 피상담자의 행동, 태도, 가치관, 자기이해 등을 수정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으며, 또한 위기의 때에 내적이고 환경적인 자원을 잘 이용하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아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상담 역시 일반 상담의 목적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며 기독교적 가치관들, 삶의 자세들, 삶의 형태 등을 갖게 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cf. Collins, 325) 기독교상담은 인간이 소유하고,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한 상담의 모든 노력은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유용성을 가질 뿐이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해답은 얻어질 수 없

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려고 애쓰지만 그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독교상담은 궁극적인 삶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제기된 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관계회복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상담은 진정한 인간의 회복이라는 교육적 차원을 갖게 된다.

이제 상담의 과정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로렌스 크랩(L. Crabb)은 문제 감정의 확인, 문제 행동의 확인, 문제 사고의 확인, 성경적 사고를 명백히 함, 안전한 결단, 성경적 행동의 계획과 수행, 영적으로 조절된 감정 확인의 7단계로 상담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Crabb, 146~160) 크랩은 감정, 행동, 사고를 적절히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고에 그 핵심을 맞추고 있다.

콜린스는 그의 제자화상담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① 상담자와 피상담자와의 관계를 성립시킨다. ②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가 과거에 이 문제와 맞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살피면서 문제점을 파악한다. ③ 행동의 방향을 정한다. 아마도 시도해 볼 만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④ 계획된 활동을 자극하고, 그것을 함께 평가한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시 시도한다. ⑤ 상담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그 스스로가 부딪치는 문제에 배운바를 적용하여 극복해 가도록 권면한다.(Collins, 201f) 이와 같은 콜린스의 상담과정은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서도 행동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제랄드 이건(J. Egan)은 기독교와의 연결을 피하면서 상담과정을 3단계로 묘사한다. 첫째 단계는 문제상황을 탐구하고 명료화하도록 내담자를 도와주는 단계, 둘째 단계는 새로운 시각과 역동적 이해에 기초한 목표설정의 단계, 세째 단계는 실천행동의 촉진,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단계이다. 그의 묘사는 매우 균형이 잡혀있으며, 특히 목표의 설정 및 구체적인 목표도달을 위한 계획의 실천과 관련된 서술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cf. Egan, 32~55) 연구자는 기독교적 상담의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상담과정의 유동성이다. 대략적인 방법으로 상담의 흐름과 방향을 묘사하고 정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상담의 흐름은 문제의 성격과 피상담자의 성격 등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다.

둘째로,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강조되어야 하는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의 변화를 그 핵심에 두면서, 그 방향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욕구를 생성시켜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내적인 욕구가 생성될 때 비로소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의 프로그램들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기독교상담은 상담의 사전단계와 추후지도라는 면에 더욱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상담의 사전단계들은 심방의 형태로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추후지도는 기독교상담의 지속적인 속성에 비추어볼 때, 중시해야 할 점이라고 보여진다.

네째, 이미 언급한 것과 유사한 말이 되겠지만 기독교상담이 단순한 선포에서 끝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아야 하며, 개개인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제시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기독교상담의 묘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제안들은 기독교상담을 더욱 교육적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기독교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의 문제들과 대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현실의 모든 문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지를 모르고, 또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나 성취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소유하기 위한 전략을 갖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삶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용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담은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상담은 더욱 교육적일 수 있다.

## 5. 결 론

본고에서 연구자는 교육목회를 목회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일로 파악하면서, 이미 목회의 의미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의미를 인식, 수용, 적용, 개발, 확대하는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교육목회에 접근하는 세 가지 접근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시도적이며, 또한 실험적이라는 것을 밝히며, 다소 연구자가 포괄적이며, 추상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더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도서목록

- 강용원, “예배를 통한 교회교육—중고등부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연구 6(1995), 53~78.
- , “2000년대 교육목회”, 21세기 교회와 목회현장, 개혁주의 교회와 생활 10, 고신대 부설 교회문제연구소 (1993. 12), 53~66.
- 김성수, “교육목회를 위한 교회의 교육구조 진단”, 교회교육 74 (1974. 7), 28~42.
- 오성춘, “어떻게 상담의 기술을 심방교역에 적용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387 (1992. 1), 186~204.
- 한춘기, “설교와 교육”, 신학지남 214 (1987. 겨울), 127~139.
- Anthony, M. J., “Putting Ministry in Perspective”, in Anthony, Michael J.(ed.), Foundations of Ministry :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for a new Generation, Weaton : A Bridge Point Book, 1992, 13~23.
- Coleman, Lucien E., Jr., Why the Church must Teach, Nashville, Tennessee : Broadman, 1984.
- Collins, Gary(ed.), Helping People Grow—Practical Approaches to Christian Counseling, Ventura : Vision House, 1982.
- Crabb, Lawrenc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 Zondervan, 1978.
- Egan, Jerald, The Skilled Helper, Monterrey, CA : Brooks/Cole, 1982, 2 ed.
- Freese, D. A., “The Church’s Educational Ministry”, in Clark, R. E., Johnson, L. and Sloat, A. K.(ed.), Christian Education : Foundations for the Future, Chicago : Moody Press, 1991, 395~410.
- Graves, Allen W., “Administration the Religious Education Program”, Found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in an Era of Change, M. J. Taylor(ed.), Nashville : Abingdon Press, 1976. 107~116.
- Pazimiño, Robert W.,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 An Introduction in Evange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8.
- Richards, L.,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 Zondervan, 1975.
- Skinner, Craig,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Pulpit,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9.
- Vieth, Paul,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 United Church Press, 1965.
- Westerhoff,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2.